

# 어두운 시대의 진실 밝힌 기록

## 하이데거의 나치 행적 추적한 저서 출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1889~1976)의 친나치 행적을 파헤친 책들이 연이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나치의 추종자였는가? 그가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는 당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한때 나치의 이념에 끌리기는 했지만 이내 환멸을 느끼고 '내적인 망명'의 길을 택했으며 결코 나치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사실은 없다고 옹호해왔다.

그러다가 몇해 전부터 하이데거의 전기를 다룬 책이 하나둘 나오면서 그와 같은 선의의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하이데거를 옹호하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최소한 그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나치즘에 몸담았고 학생들을 데리고 準군사적인 캠프를 조직했으며 자기 동료-심지어는 자기의 스승까지도-를 유대인이라고 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빅토르 파리아스가 쓴 「하이데거와 나치즘」(Heidegger and Nazism)은 바로 기존의 하이데거상을 교정하고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주요저서 중의 하나.

칠레 출신의 학자로서 한때 하이데거와 함께 공부했으며 현재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파리아스는 이 책에서 조금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이데거의 친나치 행적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제3제국에서 "게르만의 고귀한 인종적 유산의 담지자이며 수호자"로서 여성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하이데거의 부인이 쓴 한 논문의 글귀까지도 인용하고 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소련에 패배한 후 파르메니데스에 관해 행한 한 강의에서 하이데거는 이 사건을 "독일인들이 존재의 진실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꾸밈없는 독창성을 지켜내기 위해 이 왜소한 현대세계를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만큼 강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로 보았다. 자신의 사고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명징한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논하던 하이데거가 이처럼 죽음과 파괴에 대한 욕망을 군인의 용어로 거리낌없이 내보이는 데에서 저자는 이 심각한 철학자의 깊은 이율배반을 보았다.

하이데거는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개별화하는 테크놀러지로 대변되는 현대세계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잃어버린 낭만성, 잃어버린 공동성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유일한 현대의 극복방안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왜소한 현대세계'라는 그의 표현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중 독일점령하에 있던 프랑스의 정황을 묘사한 「불확실한 시간」(An Uncertain Hour)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조용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리용의 도살자'라고 불리우는 클라우스 바르비는 이 책에서 두가지 혁혁한 공격(?)을 세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는 유명한 레지스탕스 지도자 장 몰랭을 체포하여 고문치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 어린이를 살살이 색출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것이었다. 익히 알려진 얘기이지만 클라우스 바르비는 전후 재빠른 변신에 성공하여 CIA에 자기의 직업적 기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모든 죄과를 용서받는다. 저자인 테드 모건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이런 양면성 말고도 왜 그렇게 많은 프랑스인들이 유대인 아동들의 체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느냐 하는 점이다.

하이데거가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최소한 그가 자기의 이름에 값하려면 자기가 믿는 이념이 필연적으로 파르비와 같은 도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하이데거와 나치즘」을 쓴 파리아스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재난을 유감스러워 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정도로 소련에 점령된 동독 수용소내의 가혹한 처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만큼 여전히 애국자였던 모양.

혹자는 '역사의 종언'을 부르짖으

며 자유민주주의의 중국적인 승리를 선언했지만, 보편성을 자랑하는 그 이념이 개별성을 당당히 내세우는 국가주의 파시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중국적인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위의 두 저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 불의에 대항한 과학자 사하로프

과학과 사회발전과의 긴밀한 관계는 때로 과학자와 국가간의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과학이 인류사회의 행복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1922~1989)는 바로 이 점을 잊지 않으며 실천에 옮긴 과학자로 첫손 꼽힌다. 작년말 심장발작으로 68세로 세상을 떠난 사하로프의 과학자적 입장을 소련사회의 정치, 역사를 통해 조명한 책이 있어 주목을 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형성」(The Making of Andrei Sakharov)이라는 제목의이책은 사하로프가 타게타기 얼마전 출간된 것으로, 사회발전과 관련된 세명의 과학자 즉 갈릴레이 갈릴레오, J.로베르트 오펜하이머, 사하로프를 비교 분석하면서 소련사회와 사하로프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갈릴레오와 사하로프는 둘다 억압적 권위에 투쟁하다 투옥됐으며 활동의 제약 받았다.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는 당시 절대적 권위의 상징인 교회의 독단적 이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히 혁명적인 과학 사상을 주장했다.

사하로프와 오펜하이머의 비교는 더욱 현대적인 의의가 있다. 섬세하고 인간적이었던 두 과학자는 각기 대량학살용 무기제조작업에 관계하게 됨으로써 오펜하이머는 히틀러 치하에서 핵폭탄제조를, 사하로프는 미국의 '예방전쟁'에 맞설 강력한 수폭개발에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결국 이들의 작업결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15만명이 죽고, 대기 실험으로 인한 핵방사능 낙진의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했다.

수폭제조를 위해 '노예노동'을 했던 자신을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면서 사하로프는 이후 본격적인 반체제운동에 나서게 된다. 1962년 소련에서의 수폭실험을 반대하고, 핵무기삭감을 외쳤으며 인간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노벨평화상(1975)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의 탄압이 심해져 당시 브레즈네프는 사하로프를 고리키시로 국내추방했으나 그는 꾸준한 논문 등을 통해 과학에서 야기되는 가공할 위험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 책에서 저자 조지 배일리가 주장하는 바는 과학자 사하로프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신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점검하자는 것이지만, 저자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많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예컨대 고르바초프에 대한 그의 평가는 꽤 인색한 것이어서 "고르바초프가 입법사회를 약속했다면, 그것은 법률존중이라는 표면적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하로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하로프와의 한 인터뷰 내용은 오늘날 직면한 중대한 사회문제의 포인트를 바로 꼬집어낸 것이다.

"어린이이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모으는데만 열중할 때, 그때가 바로 경계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 망명 러시아작가의 신작출간

프랑스에 망명한 러시아작가 시나프스키가 최근 자신의 체험적 기록을 담은 「굿나잇」(Goodnight)을 발표했다. 도덕과 처벌, 배신과 부활에 대한 풍부한 여담들을 담은 이 소설에서 시나프스키는 소련의 불행했던 과거와 진부한 이야기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함으로써,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25년생인 시나프스키는 2차대



전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에서 연구직원으로 일했으며, 1956년에는 아브람 테르츠라는 필명으로 공상적 소설을 써서 몰래 서구로 가져가 출판하기도 했다.

「굿나잇」 역시 그의 필명으로 발표됐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를 경험한 소련인들이 한번쯤 가졌음직한 느낌들이 진솔하게 묘사돼 있다. 그의 독특한 문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지나가버린 불쾌하고 악몽 같았던 나날들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겨울과 눈, 강박한 삶과 무력감 같은 것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을 보수적인 성품으로 만들었고, 몇세기 동안 시인들과 진보적 지식인 등이 이 낡은 관습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련사회가 등장했으나 지식인들은 또다른 역설을 보게 된다. 공산주의는 구습을 '전통주의'로 구현했으며 빛나는 미래에 대한 세례를 베풀었다. 아마도 이러한 역설적 관념들은 시나프스키를 포함한 현대 러시아문학가들의 내부에 잠재됐던 듯하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알게 된 시나프스키는 그와 더불어 상례를

벗어나지 않는 역사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러시아의 정신적 힘을 지향했으며 동시대 서구의 자유방임을 혐오했다. 하지만 「굿나잇」의 기묘한 매력은 관념의 서술보다는 아주 치밀한 추억의 회상 속에 숨어있다. 시나프스키의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아주 구체적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색맹이 되었고, 꼼꼼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청록색, 갈색, 황색 같은 단어에 그의 머리속에 집어넣게 했는지, 또 아주 단순한 색깔조차도 말할 길 꺼려했던 아버지의 아픔 등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다.

## 쿠바 태생 CIA 공작원의 傳記

체 게바라의 최후를 지켜보던 쿠바태생의 한 CIA 공작원의 자서전 「그림자戰士」(Shadow Warrior)가 출간됐다. '콘드레'라는 암호명으로 각국의 전장에서 암약했던 이 공작원의 이름은 페릭스 로드리게즈. 그가 자신의 조국 쿠바를 등진

것은 1959년 카스트로에 의한 쿠바 혁명 때.

당시 17세였던 로드리게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사립고등학교에



페릭 로드리게즈(왼쪽)와 처형 직전의 체 게바라.

유학중이었고 양친 역시 멕시코 여행 중이어서 '난'을 피할 수 있었다. 쿠바의 해방을 위해 싸우기로 결의한 로드리게즈는 CIA의 지원을 받는 반(반)카스트로 조직 '제2506여단'에 참가한다. 1961년 픽스만사건(미국정부의 지원으로 망명쿠바인들이 쿠바침공을 기도한 사건)을 구실로 카스트로는 그의 모든 정적을 대대적으로 숙청한다. 하지만 우방인 미국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기만 했다고 로드리게즈는

회고한다. 1976년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도 로드리게즈는 여전히 전투에 참가하면서 니카라과아의 반정부 게릴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올리버 노스 중령의 비밀조직에도 가담한다. 여기서 그는 조직의 자금원과 이란으로의 무기매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무시해도 거의 상관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을 밝혔다.

이 책의 커버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싸웠던 CIA의 영웅"이라고 소개돼 있지만 구체적인 전투의 묘사는 거의 없다. 다만 우리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대목은 체 게바라와의 2번에

걸친 짧은 만남. 쿠바혁명의 영웅 게바라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로드리게즈의 머리속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듯하다. 1967년 로드리게즈는 게바라를 쫓아 볼리비아로 향한다. 게바라를 체포한 후 처음엔 로드리게즈 스스로 게바라를 존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게바라의 처형을 면제하도록 볼리비아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띄우나 결국 목살되고 만다. 게바라와의 두번째 만남은 그의 처형 바로 직전. 볼리비아병사가 그의 시체에서 뺨 손목시계를 로드리게즈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또 게바라와 극적으로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비장한 그의 모습에서 역사의 한 순간을 읽을 수 있다.

사실 로드리게즈와 게바라는 공통점이 많았다. 둘다 쿠바태생이면서 이상을 위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생명을 던지는 길을 택했다. 로드리게즈 자신은 게바라가 선택한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누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가는 역사가 판단해줄 일이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90년 1월 7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DARK HALF 스티븐 킹(바이킹) 한 공포물 작가가 무시무시한 살인을 계획한다.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로버트 풀럼(빌라드) 베스트셀러 작가의 새로운 수필집	THE DRAWING OF THE THREE 스티븐 킹(시그넷/NAL) "총잡이"로 시작되는 연속적인 공포 이야기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럼(아미비) 수필집
2	DADDY 다니엘 스틸(델라코트)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으로 한 노인과 두 아들의 안전한 세계가 파탄에 직면한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럼(빌라드) 인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이하는 수필집	THE SANDS OF TIME 시드니 셸던(워너) 4명의 수녀가 스페인군과 바스크 분리주의자간의 싸움에 휘말려든다.	THE CAT WHO CAME FOR CHRISTMAS 클리브랜드 에이모리(펜겐) 고집스런 구두쇠의 고양이에 대한 기억
3	CLEAR AND PRESENT DANGER 톰 클랜시(퍼트남) CIA 요원 잭 라이언이 콜롬비아의 마약 왕국과 싸운다.	ROSEANNE 로젠 바(하퍼 & 로) TV 코미디언의 자서전	THE SHELL SEEKERS 로사먼드 펠처(델) 3세대에 걸친 가족	THE BLOODING 조셉 워버(벤턴) 두 여인의 살인사건을 유전자 단서로 해결한다.
4	CARIBBEAN 제임스 미치너(랜덤 하우스) 소설 형태로 이야기되는 아름다운 카리브제도의 역사	MY TURN 낸시 리건, 윌리엄 노박(랜덤 하우스) 전직 대통령 부인의 백악관 생활 회상	A THIEF OF TIME 토니 힐러만(하퍼 페이퍼백) 행방불명된 고고학자와 잃어버린 모조품 그리고 살인자를 추적한다.	NEW KIDS ON THE BLOCK 그레이스 카탈라노(벤턴) 십대 노래모임의 멤버 다섯명의 생활
5	FOUCAULT'S PENDULUM 움베르토 에코(윌프/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고대의 문서와 신비한 암호가 컴퓨터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EDUCATION OF A WANDERING MAN 루이스 라무어(벤턴) 한 작가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곳, 읽었던 책을 회상한다.	STOLEN BLESSINGS 로렌스 샌더스(버클리) 할리우드 슈퍼스타 마릴린 테일러의 생애	THE POWER OF MYTH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생활의 무대를 밝게 비추는 신화적 방법
6	BIAN FROM MARGARITAVILLE 지미 버핏(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신비한 카리브의 한 섬을 무대로 한 짧은 이야기들	ALL MY BEST FRIENDS 조지 번즈, 데이비드 피셔(퍼트남) 쇼 비즈니스계 거물의 회상록	CAT'S EYE 마가렛 애틀(벤턴) 고향인 토론토를 방문한 한 여인이 변화한 시간을 꿈꾸어 생각한다.	GRACIE 조지 번즈(펜겐) 코미디언 그레이시 앨런의 생애
7	THE POLAR EXPRESS 크리스 반 엘스버그(휴턴 미플린) 자그만 소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차를 탄다.	LIAR'S POKER 마이클 루이스(노턴) 젊은 주식 중개인이 지켜본 다사다난했던 80년대의 월가	SAVAGE THUNDER 조안나 린케이(에이본) 영국의 젊은 미망인이 19세기 아리조나에서 사이언스작과 로맨스에 빠진다.	THE ROAD LESS TRAVELED 스킵 퀘(터치스톤/SXS) 정신건강을 다룬 수필집
8	JIMMY STEWART AND HIS POEMS 지미 스티워드(크라운) 유명한 영화배우가 쓴 시편들	DRIVE 래리 버드, 볼 라이언(더블데이) 보스턴 셀틱 스포츠구단 스타의 자서전	THE CAGDINAL OF THE KREMLIN 톰 클랜시(버클리) CIA의 잭 라이언이 미국 비밀첩보원을 구출하기 위해 추적해간다.	THE CLOTHES HAVE NO EMPEROR 폴 슐렌스키(화이어사이드) 1980년대의 별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9	STRAIGHT 덕 프란시스(퍼트남) 형이 뜻밖에 횡사한 후 장애물 경마의 기수는 재산을 상속받고 알 수 없는 격들이 나타난다.	CHRONICLE OF AMERICA 클리프턴 다니엘(ECAM/프렌티스 홀)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사건들, 미국의 현재 모습을 삽화로 담은 역사	SPY HOOK 렌 다이트(벨린타인) 영국 비밀 정보 내부의 금전 사기에 실마리가 잡힌 직원 버나드 샘슨	BLIND FAITH 조 맥기니스(시그넷/NAL) 한 가족의 비극
10	THE ELEVENTH HOUR 그레이비 베이스(아브라함스) 생일 파티에 참석한 11마리 동물들에 대한 수수께끼	CHILIDAWGS ALWAYS BARK AT NIGHT 레위스 그리자드(빌라드) 정치, 종교, 섹스, 글프 등에 관한 수필	A SEASON IN HELL 잭 히긴스(포켓) 의붓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뒤쫓는 젊은 과부	A WORLD OF IDEAS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42명의 작가, 지식인들과의 대담